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6년 4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122번(구원의 십자가)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요한 19,1~16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
-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134번(거룩하다 부활이여)

MEMO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

다음은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의 전문 요약이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에 관한 이 회칙은 예수 성탄 대축일인 2005년 12월 25일에 서명되었다.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 '창조와 구원 역사 안에서 사랑의 일치'는 다양한 차원의 사랑, 곧 '에로스'(eros)와 '필리아'(philia)와 '아가페'(agape)에 관하여 신학적 철학적 성찰을 제시하며,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맺는 본질적 관계의 일부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다. 제2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랑의 실천'은 이웃 사랑의 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제1부 창조와 구원 역사 안에서 사랑의 일치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자주 남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 '사랑'이라는 말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전형은 고대 그리스에서 '에로스'라고 부른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의 개념이 더욱 심오하게 발전되어, '에로스'라는 말 대신에 봉헌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시작된 사랑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에로스'와 모든 육체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흔히 간주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향이 있어 왔지만, 그 발전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에로스'는 창조주께서 인간 본성 안에 심어 주신 것으로, 그 본래의 품위를 잃고 순전히 '섹스'의 차원으로 전락하여 상품화되는 일이 없도록, 단련되고 정화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언제나 인간을 정신과 물질이 서로 결합된 존재로 여김으로써, 인간에게 새로운 숭고함을 부여해 왔습니다. '에로스'의 문제는 인간의 몸과 영혼이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에 극복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랑은 참으로 '황홀경'에 이릅니다. 곧 사라져 버리는 순간적 도취라는 의미의 황홀경이 아니라, 자신 안에 갇혀 있는 '나'에서 영원히 벗어나 자신을 내어주는 자유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자신을 재발견하는, 아니 그보다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는 황홀경인 것입니다. 이처럼 '에로스'는 인간이 '황홀경 안에서' 신적인 것을 지향하도록 인간을 드높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에로스'와 '아가페'를 서로 완전히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에로스'와 '아가페'는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이 둘이 올바른 균형을 이룰수록 사랑의 참 본질은 더욱 잘 실현됩니다. 본래 '에로스'는 무엇보다도 갈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감에 따라 자신의 문제보다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더 추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자 열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되고 '아가페'가 달성됩니다.

가장 완전한 '에로스-아가페'의 형태는 하느님의 구현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를 드높이시고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내어주신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가장 숭고한 형태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찬례를 제정하시어 이러한 봉헌 행위가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성찬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새로운 만나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께 결합시키십니다. 우리 역시 성찬례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역동적인 봉헌 행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께 결합되고, 동시에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다른 모든 이와 결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한 몸'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참된 융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이중 계명은 하느님의 '아가페'와 만남으로써 단지 하나의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형선고를 받으신 예수

- 요한 19,1-16 -

복음서 안에서 아마 가장 극적인 순간일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서는 황제의 옷색깔인 자홍색 옷을 걸치시고 가시나무 가지로 된 가시관을 쓰신 채 대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 앞으로 나타나신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새로운 황제가 월계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으로 갈채를 받기 위해 자기 신하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타나던 그 의식을 모방하는 조롱을 당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라는 환호 대신에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라는 고함소리를 들으신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자들 앞에 세우면서 이렇게 말한다. **“보라 이 사람을!”** 이 짝막한 말은 수 세기동안 성인들과 학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끌어당겨 왔으며 그 결과 이에 대한 깊이있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들 가운데서 첫 번째 것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빌라도의 말은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극도의 경멸을 보여주고 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한 저들의 거짓된 고발을 자신이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한낱 사람일뿐 아무리 보아도 로마 제국의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는 불쌍할이만큼 무력한 사람이다. 하지만 성 요한에게 있어서는 빌라도의 이 말이 심오한 진실을 지니고 있는데 그 까닭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 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이신 구원자이신 것이다.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기를 스스로 포기한 자를 변화시킬 ‘외부의 힘’ 은 없다.
“사람으로 살기를 그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자들
비록 그들 안에도 신이 거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다른 누구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사악함이 제 2의 천성으로 되어버린 자들을 외부의 어떤 힘이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런 자들은 죽어야만 풀려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쳐대는 무리나 그들의 헐박(“만일 그자를 놓아준다면 총독님은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을 이기지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내어주는 빌라도나, 모두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나눔>

1. 나의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내 이웃을 비판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는 않았는지요.
2. 사순절 동안 자신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하셨습니까?



★ 마음으로 다스리는 내안의 나 ☆ -

내가 남한테 주는 것은 언젠가 내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내가 남한테 던지는 것은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달릴 준비를 하는 마라톤 선수가 옷을 벗어던지듯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잡념을 벗어던져야 한다.

남을 좋은 쪽으로 이끄는 사람은 사다리꼴과 같다.
자신의 두 발은 땅에 있지만 머리는 벌써 높은 곳에 있다.

행복의 모습은 불행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죽음의 모습은 병든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

웃음 소리가 나는 집엔 행복이 와서 들여다보고,
고함 소리가 나는 집엔 불행이 와서 들여다본다.

받는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이는 가난과 싸우고 어떤 이는 재물과 싸운다.
가난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많으나 재물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적다.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달리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낸다.

느낌 없는 책 읽으나 마나, 깨달음 없는 종교 믿으나 마나,
진실 없는 친구 사귀나 마나, 자기 희생 없는 사랑 하나 마나.

마음이 원래부터 없는 이는 바보이고, 가진 마음을 버리는 이는 성인이다.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이는 똑똑한 사람이고,
비뚤어진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성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돈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낮이 즐겁고, 육체로 결혼한 사람은 밤이 즐겁다.
그러나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은 밤낮이 다 즐겁다.

황금의 빛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애욕의 불이 마음에 검은 그늘음을 만든다.

두 도둑이 죽어 저승에 갔다.
한 도둑은 남의 재물을 훔쳐 지옥엘 갔고, 한 도둑은 남의 슬픔을 훔쳐 천당에 갔다.

먹이가 있는 곳엔 틀림없이 적이 있다. 영광이 있는 곳엔 틀림없이 상처가 있다.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의 소망은 작아지고,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번뇌는 작아진다.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용기는 기억하되 실수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